

하북, 드론·스마트 관개 등 농업기술로 봄경작 지원에 박차

봄기운이 대지를 따뜻하게 감싸면서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다. 하북성 겨울밀이 생장 회복의 중요한 시기에 들어서면서 이곳에서는 현대농업기술을 활용해 관개, 과학적 시비, 병해충 방제 등 작업을 추진하며 밀의 안정적인 생장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하북성 보정시 망두현에서 한 농민이 진압·제초기로 작업하고 있다. / 신화넷

하북성 보정(保定)시 망두(望都)현 고우(高尤) 농업기술서비스전문합작사의 고표준 농경지에서는 여러대의 식물보호용 드론이 북두(北斗) 위성항법시스템(BDS)을 기반으로 사전에 설정된 항로를 따라 저고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농약·비료 살포 등 각종 작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면서 과학기술이 봄경작 생산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합작사 책임자 황효송(黄晓松)은 스마트 농업 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종·토양·병해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드론을 통한 융합 스마트 설비를 통해 작업 효율과 관리 정밀도를 높이며 밀 생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단(邯郸)시 광평(广平)현의 대규모 곡물 경작지에서는 밀밭에 설치된 분수 장치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며 물안개를 고르게 뿌려 밀 모종에 필요한 수분과 양분을 정밀하게 공급하고 있다.

해당 경작지 농가 연금덕(烟金德)은 “이 분수 장치 시스템은 물과 비료를 작물 뿌리까지 직접 공급할 수 있기

에 물을 절약할 수 있을뿐더러 노동력 부담도 줄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대수만관(大水漫灌, 농경지에 물을 가득 채우는 관개법) 방식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전원만 연결하면 24시간 자동화 작업이 가능해져 관리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광평현농업농촌국 농업기술보급원

구원 왕해성(王海星)은 지난해 현지 밀 파종 시기가 전반적으로 약 20일 늦어지면서 밀 생장이 다소 부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비료 일체화 시스템을 활용하면 모종·토양 상태에 맞춰 수분과 비료 비율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밀의 안정적인 생장에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현재 하북성 형수(衡水)시에서는 3,300여평방키로미터 규모의 겨울밀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에 현지는 농업기술 인력을 조직해 현장을 돌며 모종·토양·병해충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봄철 밀밭 관리를 지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형수시농업농촌국은 하북성농림과학원 한작(旱作)농업연구소와 함께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마쳤다.

한작농업연구소 부연구원 맹상해(孟祥海)는 “봄철에는 기온 변동이 비교적 크므로 사전에 늦서리에 대비해 한파가 닥치기 전에 적시에 밀밭 다지기, 물 보충 등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병해충 방제에 중점을 두어 전방위적으로 밀의 건강한 생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화넷

70 개 도시 부동산 가격 안정세

1 선 도시 신규 상품주택 가격 하락세 멈춰



2025년 9월 15일, 상해시 정안(静安)구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 외관. / 신화넷

우리 나라 70 개 대·중 도시, 특히 1 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전월 대비 안정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 반등의 긍정적인 신호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 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 월 우리 나라 1 선 도시 신규 상품주택 판매가격은 1 월의 전월 대비 0.3%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유지했다. 그중 북경과 상해는 각각 0.2% 상승하고 광주는 변동이 없었으며 심수는 0.3% 떨어졌다. 2 선, 3 선 도시 신규 상품주택 판매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0.2%, 0.3%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모두 0.1% 포인트 축소됐다.

기존 주택 시장을 살펴보면 2 월 1 선 도시의 기존 주택 판매가격은 전월 대비 0.1% 하락, 하락폭은 전월 대비 0.4% 포인트 축소됐다. 그중 북경, 상해는 각각 0.3%, 0.2% 상승했다. 2 선, 3 선 도시의 기존 주택 판매가격은 전월 대비 0.1% 포인트씩 줄어든 0.4%, 0.5%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했거나 하락세를 멈춘 도시는 17 개로 1 월보다 9 개 늘었다. 기존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한 도시는 66 개로 줄면서 2 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 신화넷

해남자유무역항 봉관 효과 본격화

대외무역 29% 이상 증가



해남성 해구시 수영(秀英)항. / 신화넷

해남자유무역항 봉관 운영 정책이 시장에 활력을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17 일 해구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 월 18 일 봉관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기준 해남의 상품무역 수출입액은 654 억 9,000 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했다. 그중 올 1 월-2 월 대외무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남자유무역항 건설을 발표했던 지난 2018년과 비교할 때 봉관 단 두달여 만에 해남의 대외무역액이 2018년 한해 대외무역액의 80%에 육박한 것이다.

봉관 운영 이후 해남 대외무역 경영주체의 활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수출입 실적에 있는 기업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민영기업이 해남성 수출입총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면서 대외무역 핵심 세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다.

해남의 대외무역 시장 역시 계속 다변화되고 있다. 해남은 이미 220 여개 국가(지역)와 무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와의 수출입 비중이 61%를 넘어서는 등 여러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신화넷

홀고스철도통상구, 10 년간 중국-유럽 화물열차 통행량 1.9 만편 이상

지난 10 년간 홀고스(霍尔果斯)철도통상구가 중국-유럽 화물열차 발전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철도그룹우룸치국 홀고스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첫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홀고스철도통상구를 통과한 이후 현재까지 이곳을 통행한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총 1만 9,000 편을 넘어섰다.

신강 알라산구(阿拉山口)통상구와 홀고스통상구를 거쳐 출항하는 중국-유럽 화물열차 서부 로선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철도운송 통로이다. 10년 동안 홀고스통상구는

전국적으로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가장 바쁘게 오간 통상구중 하나로 자리 매김했다.

화물 품목은 초기의 일용잡화, 방직·의류에서 전기기계 장비, 신에너지차, 전자제품, 농부산물 등 200 여종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화물열차의 운송 구조도 꾸준히 최적화됐다.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운송 시간이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며 안정성이 높기에 유럽 시장을 확대하는 데 있어 가장 선호하는 물류 방식이다.”

신강 중련해통(中联海通) 국제화

물운송 대행업자 매니저 장운우(张云雨)는 현재까지 자사가 대리 운행한 화물열차는 2,000 여편에 달한다고 전했다.

최근 수년간 홀고스는 통상구 개혁을 계속 심화하고 ‘스마트 철도통상구+해당 지역 신속 통관’ 모델을 혁신적으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세관, 변경 검사, 철도 등 여러 자원을 통합하며 열차 회전 효율을 20% 이상 끌어 올렸다.

홀고스세관 감독관리 3과 부과장 조원봉(赵远凤)은 세관은 년중무휴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유럽 화물열차 서비스 전용 창구를 구축하며 화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우선 편식+신속 검사 및 통과’ 특색 통로를 도입해 화물열차 운송 효율을 계속 향상해왔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홀고스 중국-유럽(중앙아시아) 화물열차의 운행량과 화물 통과량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강의 19개 대외개방 통상구중 홀고스통상구의 수출입 화물 운송량은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 신화넷

올초 우리 나라 경제 순조로운 출발

3월 16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2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하였다. 이는 작년 12월보다 1.1% 포인트 오른 수치이다.

사진은 3월 16일, 호북성 광구성 창(光谷盛创) 기술인원들이 로봇트 축구경기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는 장면이다.

/ 신화넷



图说 我们的价值观

勤善为本 吉福满门

富强民主 文明和谐

自由平等 公正法治

爱国敬业 诚信友善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河南南阳 张新亮作